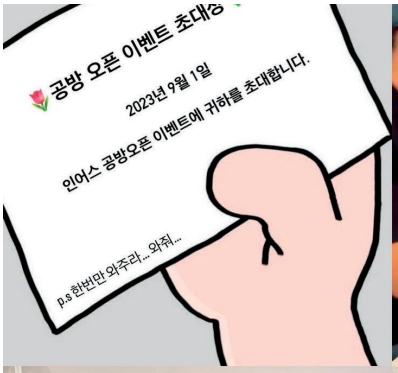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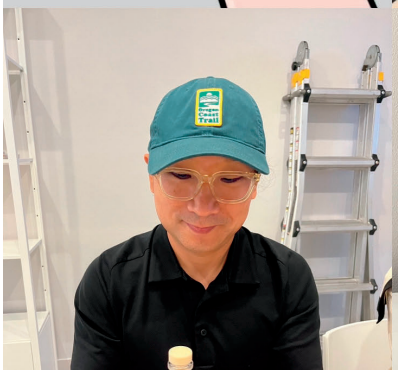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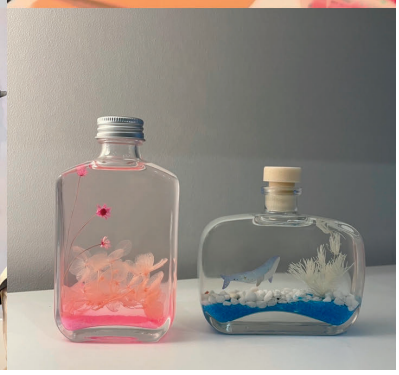
08월의 편지

푸르른지역아동센터 뉴스레터

2023년 08 월호







세부 내용

‘자립’의 무게

08월의 이야기

미리보는 09월

‘자립’의 무게

송경호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생활시설, 이용시설을 막론하고 만1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이면 시설을 떠나야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ㅠㅠ 어떻게 만18세의 나이에 홀로 이 세상에 던져져야 하는지. 그러기에 푸루른의 가장 큰 꿈이며, 목표는 ‘청년이 되었을 때 자립의 힘을 가지도록 돕는다’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건 정말로 쉬운게 아닙니다. 그래서 매번 종결하는 아이들을 그냥 마음으로 응원해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초 경북경제진흥원에서 찾아와서 청년창업프로젝트를 권유했고, 우리는 하나의 큰 사인이라고 받아들이고 그 프로젝트에 2팀이 뛰어 들었습니다. 몇 개월의 고군분투 끝에 9월 1일 드디어 하나의 공방 ‘in your scent’(INUS)’ 조향공방이 오픈을 했습니다.
그간 쉽지 않은 여정에서 좋은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오픈을 했지만, 솔직히 앞으로의 여정이 더 걱정이 됩니다. 아무런 배경도, 도움도(프로젝트가 끝났기에)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은 이제 정말 홀로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저와 아내를 초대해서 오픈 기념으로 원데이클래스 수업도 진행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만든 향을 예쁜 선물상자에 담아서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그 안에 담긴 향수도 향수이지만 감사카드는 눈물이 쏟아지게 하더라고요.
대표를 맡고 있는 아이가 큰절을 하는 사진을 출력해서 붙이고, “이말외에는 더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적힌 문구를 보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막막한 여정을 시작했지만, 아이들은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마음과 노력, 어쩌면 넘어지게 될지도 모르는 두려움. 이 모든 것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자립’이라는 무게를 견디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또 다른 꿈’이 될 수 있도록!

08월의 편지 - 초등학생

초등학생들의 도전(왼쪽부터)

8월은 아이들에게 여름의 마지막을 보내는 시간이랍니다. 초등학생들은 방학중 여러 캠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8월14일~15일까지 천문대체험 캠프를 다녀왔습니다(초등4~6학년 대상).
경주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서 주관하고 경주시가 후원해주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색다른 경험을 하면서 아이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았답니다.
초등학생들은 8월 방학 중에는 센터에 일찍 등원해서 저녁 식사까지 또는 식사 이후에도 센터에서 생활하는지라 즐겁게 보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중에 '목요일'을 '노는날'로 정해서 그날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고 2층 '예체능실'에서 자유롭게 놀게 했답니다.
8월29일에는 7, 8월 생일자를 위한 생일파티를 열었습니다. 늘 생일파티에서는 아이들이 원하는 음식을 미리 주문을 받아서 함께 먹기 때문에 생일자들도, 함께 하는 아이들도 아주 즐거운 시간이랍니다. 특히나 초등학생들에겐 정말 파티 같은 날이라는 ㅎㅎㅎ

중고생들의 도전

8월 중고생들은 방학이지만 아주 바쁜 일상을 보냈습니다. 먼저 탁구교실에 새로운 친구들이 합류하면서 더 재미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신규 중학생 중에서 탁구교실에 참여하면서 조금씩 아이들이랑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드디어 '꿈을방송하다' 방송팀의 '다큐멘터리'(주제:마스크) 제작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획을 마무리하고 섭외와 촬영, 편집 등이 이루어지면서 어느 정도의 작품이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8월 중순 개학을 하고도 작업에 집중한다고 매일 매일 10시가 넘어서 귀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선을 다하는 '꿈방'팀에게 응원과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수원 행복희망나래 사업에서 IT연속사업으로 선정(전국 3군데 선정)돼 영상팀에 신규 아동들이 합류(초6학년 2명, 중1학년 1명, 중2학년 1명)를 했습니다.더 열심을 내는 것 같습니다. 다큐멘터리는 9월달 한달 동안 마무리를 하고 10월 21일 DMZ영화제에서 상영을 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매학기 마다 경주황성동 소재의 한마음교회에서 중고생 중에서 3명을 선정해 장학금을 전달해주십니다(8월 29일). 늘 아이들을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리보는 09월

8월 방학을 마치고 이제 9월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방학 동안 아이들과 다양한 외부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수고해주신 선생님들과 후원 해 주신 행복히어로주주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9월에는 2학기가 시작되고, 무엇보다 중3과 고3들에게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중3 대부분은 인문계열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중간고사부터 기말고사까지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고3들은 수시접수를 시작하는 시기라 진학상담을 계속 진행하면서 대학들을 리스트업 하고 함께 원서 접수를 돕고 있습니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꿈을방송하다' 유튜브 채널에 드디어 '미친챌린지 2탄'이 업로더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다큐멘터리 제작 과정을 숏츠와 영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6개 기관이 선정되어 진행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책임 멘토는 한예종 교수님께서 맡고 계시고, 현직의 PD님들께서 멘토로서 여러 강의와 캠프를 진행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다만, 함께 하는 기관들이 유수의 뛰어난 배경을 가진 학교들이 대부분이라 장비와 지원인력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꿈을방송하다' 유튜브 팀들이 최선을 다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나름 전문가처럼 기획과 큐시트 등을 직접 제작하고 촬영일지를 적고 백업영상을 만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끝까지 작품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응원과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팀장 아이는 고3인데, 영상 관련 대학에 진학하려고 준비중입니다).

꿈을방송하다 -

08월의 목저씨(목사+아저씨) 이야기

아이의 마음 !

늘상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다보면 의외로 오래 있었던 아이들의 마음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낯선 이보단 가족에게 더 함부로 할 때가 있는 것처럼. 이번에도 이런 상황이 재현 될 뻔했습니다. 인근의 초등학교에서 센터 이용을 필요로 하는 아이가 있어 문의가 왔습니다.
푸르른의 원칙상 당연히 필요로 하는 아이를 받아야 하기에, 학교 담당자와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또래의 아이가 새로운 친구가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근데 00 그 친구가 올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순간부터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ㅠㅠ"라고. 그러면서 이어서 한 말에, 그 아이의 마음이 확 와 닿았습니다.
"학교에서도 같은 반이라 계속 봐야 하고, 센터에서도 보면 하루종일 봐야 하는데... 진짜 안될 것 같아요ㅠㅠ"
그렇게 힘들어하는 아이에게 '견뎌라. 좋은 일이니까 참으라'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아이의 마음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늘 딜레마 같지만, 아이의 마음을 늘 살필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경북 경주시 동천로39
번길2 3층
푸르른지역아동센터
054)774-4453
푸르른은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담아 아이들을
섬기고자 합니다.